

OECD/DAC(개발원조위원회) 개발평가네트워크 회의 결과

OECD 개발원조위 개발평가네트워크(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) 제5차 회의가 Eva Lithman 의장(스웨덴) 주재로 11.16(목)-17(금)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는바, 주요 회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.

I. 핵심내용

- 원조효과의 공동평가 5개 사업 및 DAC 평가기준 및 규범 7개 사업으로 구성된 개발평가네트워크의 2007-2008 PWB를 검토하였음.
- 원조효과의 공동평가와 관련, 회원국들은 파리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동평가 작업을 지지하고, 수원국의 전체 ODA 공동평가와 GBS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현황을 점검하

였으며, 평가능력개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됨.

- 한편, 지난 3월 4차 회의에서 승인된 평가품질기준이 다수 국가에서 시험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, 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과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(CPPB) 평가지침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, 다자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동료검토 Framework(초안)이 소개되었음.

II. 관찰 및 건의

- 원조효과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원조사업 평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동평가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고, 이를 위한 평가기준 및 규범이 계속 마련되는 추세이며,

이에 따라 금번회의에는 70여명의 평가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함.

-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DAC의 평가기준과 지침을 우리 평가제도 운용에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, 특히 지난 3월 제4차 DAC 개발평가네트워크 회의에서 채택된 다음 3개 지침은 평가제도 발전에 긴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Evaluations Systems and Use : An Assessment Tool for DAC Peer Reviews and Evaluation Managers : DCD/DAC/EV(2006)1
- DAC Evaluation Quality Standards : DCD/DAC/EV(2006)2
- Guidance for Managing Joint Evaluations : DCD/DAC/EV(2006)3

- 또한, DAC 개발평가네트워크 회의가 평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, 향후 우리의 원조사업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동 회의에 참석할 것을 건의함.

Ⅲ. 상세 논의 내용

1. 의장단 선출

- 신임 의장단으로 다음 인사들이 선임됨.
 - 의장 : Finbar O'Brien 아일랜드 개발협력청 평가감사과장
 - 부의장 : Dominique De Crombrugghe 벨기에 외교부 특별평가관, Belen Sanz Luque 스페인 개발협력청 개발정책평가과 팀조정관
 - 신임 의장단의 임기는 금번회의 직후부터 개시

2. 2007-2008 PWB 계획안 :

DCD/DAC/EV(2006)4

- 사무국은 우선순위평가와 약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-2008 사업계획을 2개의 작업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제안
 - 원조효과의 공동평가(5개 세부사업) : 40만 유로 소요
 - DAC 평가기준 및 규범(7개 세부사업) : 30만 유로 소요
- 상기 2개 작업계획은 DAC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서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는데, 38개 제안 사업 분야 중에서 원조효과의 공동평가 사업이 6위, DAC 평가기준 및 규범 사업이 16위를 차지

- 사무국은 상기 사업에 대한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의 조기 약정을 요청함.

Workshop에서 다수 파트너국가들도 공동 평가 사업에 지지를 표명함.

3. 원조효과의 공동평가

-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공동평가 작업 (Joint Evaluation follow up to the Paris Declaration)

- 사업 추진 경과

- 파리선언은 모니터링과 함께 평가과정도 중요시하고 있는바, 평가네트웍은 3차 및 4차 회의에서 평가과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파리선언 모니터링 Joint Venture, 원조효과 작업반, 일부파트너 국가와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왔음.
- 2006.7 원조효과작업반(WP-EFF) 회의에서 평가네트웍 부의장은 파리선언에 따른 후속 공동평가 작업을 위한 옵션을 제시하였는바, WP-EFF 회원국들은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, 평가네트웍이 평가과정을 진행시켜나가고, 2008년 7월 가나 개최 제 3차 고위급포럼(HLF)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에 합의
- 아시아, 아프리카,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개최된 원 조 효 과 에 관 한 지 역 별

- 동 작업을 위해 평가과정에 4가지 요소, 즉 공동의 평가 framework의 개발, 파트너 국가 평가, 공여국 평가 및 중장기 분석 작업을 포함하는 잠정적인 접근방안이 제시되어 회원국의 지지를 받음 (평가네트웍 2006.3월 회의 및 원조효과작업반 7월 회의)

- 동 사업의 팀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덴마크는 2007-2008년간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, 향후 Reference Group과 Management Group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며, 회원국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함.
- 동 공동평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해온 파트너 국가는 베트남, 필리핀, 스리랑카, 세네갈이며 잠비아, 남아공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소개함.

- 대다수 회원국들은 동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고, 특히 Reference Group(덴마크, 영국, 네덜란드, 일본, 스페인, 벨기에, 핀란드, 프랑스, 스웨덴, 아일랜드, 독일)과 Management Group(덴마크, 네덜란드)에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, 일부 국가(영국, 네덜란드, 핀란드, 프랑스, 스웨덴, 독일, 캐

나다)는 재정적 기여를 약속함.

■ 수원국의 총 ODA 공동평가 (Joint Evaluation of Total ODA at the Country Level)

-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개요

- 2004년 11월 덴마크, 네덜란드, 스웨덴은 수원국 국가단위의 ODA 전체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해 공동의 시범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여건 미성숙으로 진행되지 못함.
- 이에 따라 스웨덴이 사업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검토기로 한바, 스웨덴은 예비적인 기술평가결과를 2006년 평가네트워크 회의에 제출하였으며, 향후 관심 파트너 국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함.

- 수원국의 전체 ODA 평가사업은 공여기관의 개별적인 평가횟수를 감소시키고, 개발협력 거래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으므로 파리선언의 원칙에 부합되는 평가이며, 수원국가와 외부 공여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평가 기구를 만들어 평가 수행 가능
- 국가개발의 시각에서, 개발영향에 초점을 두고, 개별 공여자의 기여보다는 공동의 영향에 중점을 두고 평가

- 스웨덴은 2006년 10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관심 공여국 회의에서 아프리카 1개국을 선

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부르키나파소, 가나, 말리, 모잠비크, 잠비아 등 5개 대상국 중 잠비아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함.

- ADB는 아프리카 사업과 병행하여 ADB와 WB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평가 사업의 진전 현황을 보고함.

■ GBS 공동평가 후속점검(Follow up to the Joint Evaluation of General Budget Support)

- GBS Report (The Joint Evaluation of General Budget Support : 1994-2004)는 24개 공여국과 7개 파트너 국가(부르키나파소, 모잠비크, 말라위, 루안다, 우간다, 니카라과, 베트남)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며 2006년 5월 발간됨.
- 동 보고서는 2006년 5월 OECD 정책결정자 설명회(Dissemination Conference)에 제출되었으며, 5월 DAC 정례회의, 7월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서 검토되었는바, 향후 평가네트워크가 평가에 대한 각국의 관리상의 조치 및 약속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추진기로 함.

- GBS 평가를 이끌어 온 영국은 후속 모니터링 과정도 주도하고 있으며, 회원국들의 관

리상의 조치를 2006년 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, 2007년 및 2008년에 각각 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함.

■ 평가능력개발(Evaluation Capacity Development)

- 일본은 파트너국가의 평가능력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.
- 공여국 및 기고나의 ECD 지원 현황, ECD 원조전략 및 정책, ECD를 위한 예산배분, ECD의 평가, 주요 과제 및 제약요인, ECD 촉진 방안 등에 대해 조사
- 회원국들의 평가능력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따라, 일본 주도로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, 일본은 Task Force에 관심있는 국가들의 참여를 요망함.

4. 평가 기준 및 규범

■ 평가품질기준 적용

- 제4차 개발평가네트웍 회의는 평가품질기준(DAC Evaluation Quality Standards)을 승인하고 향후 3년간 적용 시험기간을 갖기로 하였는바, 회원국들이 발표한 동 기준 적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· 동 기준을 그래도 사용하는 국가와 자국 실정에 맞추어 사용하는 국가가 있으며, 포르투갈, 뉴질랜드, 스위스, 스페인, 네덜란드, 벨기에, 스웨덴, 캐나다, EC 등이 현재 어떤 형태로든 적용하고 있다고 발표함.

■ 영향평가(Impact Evaluation)

- 세계은행(WB)의 독립평가그룹(IEG)은 영향평가를 위한 기본 개념과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향후 영향평가 가이드라인(Guidelines for Impact Evaluation)을 성안하는 작업 등을 제시하였는바, 의장은 Task Force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기로 함.

■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(CPPB) 평가 지침의 개발

- 노르웨이는 DAC CPDC와 합동으로 “DAC guideline for Evaluating CPPB Activities” 개발을 위해 11.20~21, 양일간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Workshop에서 접근방법 보고서 초안(Draft Approach Paper)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함.

■ 세계 및 지역 파트너십 사업(GRPPs)의 평가

- 세계은행은 독립평가그룹(IEG)이 작성한 세계 및 지역 파트너십 사업의 평가원칙과 기준 초안 (Draft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the Evaluation of Global and Regional Partnership Programs)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함.

■ 다자기관의 성과 평가(Performance Assessment of Multilateral Institutions)

- 사무국은 다자기관의 성과평가 관련,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하에서 개최되는 workshop 및 전체회의에 대해 설명하고, 2007년 1월 29~30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비공식 전문가 workshop을 소개함

바. 다자평가시스템(Multilateral Evaluation Systems)

- 국제기구 평가를 위한 동료검토가 시범적으로 UNDP 및 UNICEF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, DAC 개발평가네트워크와 UN 평가그룹(UNEG)이 Joint Task Force를 설립하여 동료검토 Framework을 개발하기로 하였는바, 다음 두 가지 문서가 마련되었음
 - A Joint Initiative of the DAC Evaluation Network and UN Evaluation Group
 - A Framework for Future Peer Reviews (draft)

[자료: 주오이시디대표부]